

2026년도 4/4분기 여수지역 기업경기전망(BSI)조사



■ 여수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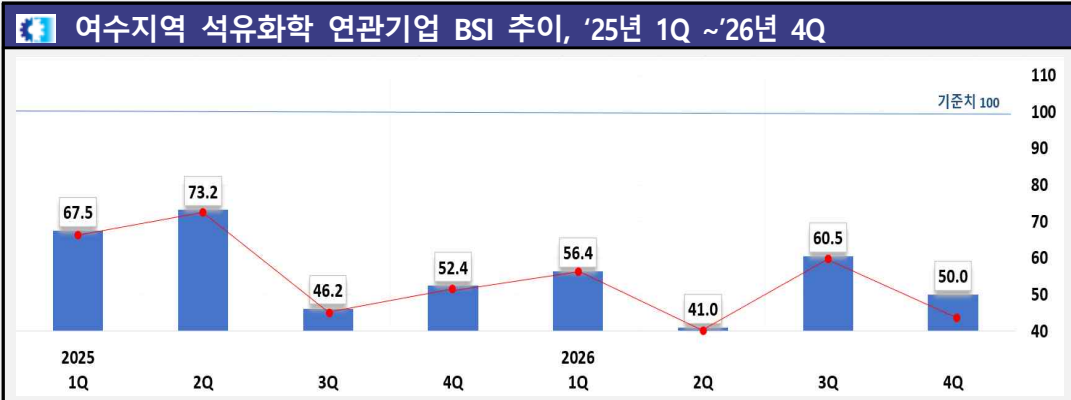
☒ 전망 지수

- (종합) 2026년 4/4 분기 여수 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BSI, n=64)는 65.6으로 전 분기 전망치 61.8보다 3.8p 상승했으나,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돌아 지역 제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조사됨.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종합	83.8	89.3	88.4	97.1	62.3	73.8	89.2	102.9	83.8	83.6	80.6	95.2	77.8	70.7	58.6	69.4	55.7	52.1	49.3	54.9	61.8	65.6
석유화학연관업종	84.6	100	94.7	97.2	60.5	70.6	88.6	102.8	75.7	86.1	75.8	88.9	73.8	72.5	67.5	73.2	46.2	52.4	56.4	41.0	60.5	50.0
일반업종	82.8	75.0	80.6	96.9	64.5	77.8	90	102.9	93.5	80.6	86.2	103.8	82.1	68.6	46.7	64.5	67.7	51.7	41.2	71.9	63.3	85.7

- ※ BSI의 기준치는 100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호전(상승·증가)'으로 응답한 업체 수가 '악화(하락·감소)'로 응답한 업체 수를 상회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 반대의 상황을 나타냄.
-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연관 업종 50.0, 일반업종 85.7로 조사되어 상반된 흐름을 보였음.
- 일반업종의 전망 개선이 전체 지수 상승을 이끈 반면, 석유화학연관 업종은 전 분기보다 하락하면서 업종 간 체감경기 차이가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남

☒ 2026년 4/4 분기 기업경기 전망(석유화학 부문)



- (석유화학연관 업종) 4/4분기 BSI는 50.0으로 전 분기 60.5보다 10.5p 하락했음. 최근 여수산단의 석유화학 업황 부진과 구조 개편, 설비 가동 조정 등이 이어지면서 생산·투자 및 연관 기업의 수주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체감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다만 주요 기업의 대정비로 정비·보수 분야의 일감과 인력 수요가 일시적으로 확대된 측면도 있음.
- (일반업종) 4/4 분기 BSI는 85.7로 전 분기 63.3보다 22.4p 상승했음. 지역 내수와 계절적 소비·방문 수요 등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기준치 100을 밑돌고 있어 본격적인 경기 회복보다는 부진 완화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수준으로 판단됨.
- (종합) 이번 4/4 분기 전망은 지역 제조업 전반의 일률적인 회복이라기보다, 일반업종의 기대 개선과 석유화학연관 업종의 부진이 동시에 나타나는 업종별 차별화 흐름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

☒ 주요 질의응답

- 올해 목표치 달성에 있어 현재 귀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판매수주 여건 악화	② 원자재·에너지 등 생산비용 상승	③ 금융비용 감소 및 자금조달 여건 개선	④ 원물 변동성	⑤ 인건비 증가 및 인력 확보 애로기	⑥ 통상환경 개선 (공급망 안정, 관세 인하 등)	⑦ 제도 (규제·인허가)개선	합계
27.00%	37.10%	7.90%	11.20%	11.20%	4.50%	1.10%	100%

1. 조사의 개요

❶ 목적

- 여수지역 제조업체의 다음 분기(10월~12월) 경기전망(체감조사)을 조사·분석하여, 역내 기업의 경영활동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동시에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경기 대책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❷ 조사 기간 및 조사 방법

- '26년 3/4분기(7, 8, 9월) : 실적 기간
- '26년 4/4분기(10, 11, 12월) : 전망 기간
- 조사 기간 : '26. 8. 31. ~ '26.9. 21. (휴일 제외 15일)
- 조사 방법 : 설문지 조사 방식(리커트 척도)

❸ 조사 대상

- 여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상시 종업원 15인 이상의 제조업체 186개 사
- 응답 개수 : 64개(설문지 회수율 : 34.4%)

❹ 조사 내용

- 전반적인 체감경기(경기실적 및 전망)
- 경기 변화에 따른 기업 부담과 대책 상황 등

❺ 집계·분석

- 회수된 조사표를 항목별로 집계·통계(리커트 척도)·분석·보고

❻ 기업경기전망지수(BSI) 작성 방법

- 설문지 조사를 통해 경기 실적과 전망, 항목별 평가를 조사했으며, 조사 대상 기간의 체감경기를 기준으로 각 항목에 대해 호전(상승·증가) 또는 악화(하락·감소) 여부를 응답받아 이를 지수화했음.

$$\text{기업경기전망지수(BSI)} = \frac{\text{증(+) 응답 업체 수} - \text{감(-) 응답 업체 수}}{\text{총 유효 응답 업체 수}} \times 100 + 100$$

※ BSI = Business Survey Index (0≤BSI≤200)

- BSI의 기준치는 100이며, 100을 초과할 때는 호전(상승, 증가)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하락, 감소)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 100 미만일 때는 그 반대를 뜻함.

2. 2026년 4/4분기 기업경기 전망

종합 전망

- 여수지역 2026년 4/4 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65.6으로, 전 분기 전망치 61.8보다 3.8 상승했음. 다만 기준치 100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쳐 지역 제조업의 체감경기 부진은 계속되는 것으로 분석됨.
- 4/4 분기 경기전망 지수 상승(3.8)은 일반업종의 개선 기대가 반영된 영향이 크며, 석유화학연관 업종은 반면 50.0에 그쳐 전 분기보다 낮아졌음. 따라서 이번 결과는 지역 제조업 전반의 회복보다는 업종별 체감 차이가 확대된 흐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최근 석유화학산업은 중국·중동의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과잉, 범용 제품 가격 경쟁, 원자재·에너지 비용 부담이 지속되고 있음. 여수지역 역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과 고용안정 지원사업 등 정책 지원이 추진되고 있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수익성 회복과 자 금사정 개선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항목별 기업경기전망지수

▶ 종합 (N=64)

구분	항목	'26년 3Q 실적 (전 분기 대비)	'26년 4Q 전망 (전 분기 대비)
	체감경기	60.5	65.6
	매 출 액	78.9	67.2
	영업이익	63.2	57.8
	설비투자	78.9	70.3
	자금사정	76.3	65.6

▶ 석유화학연관 업종(N=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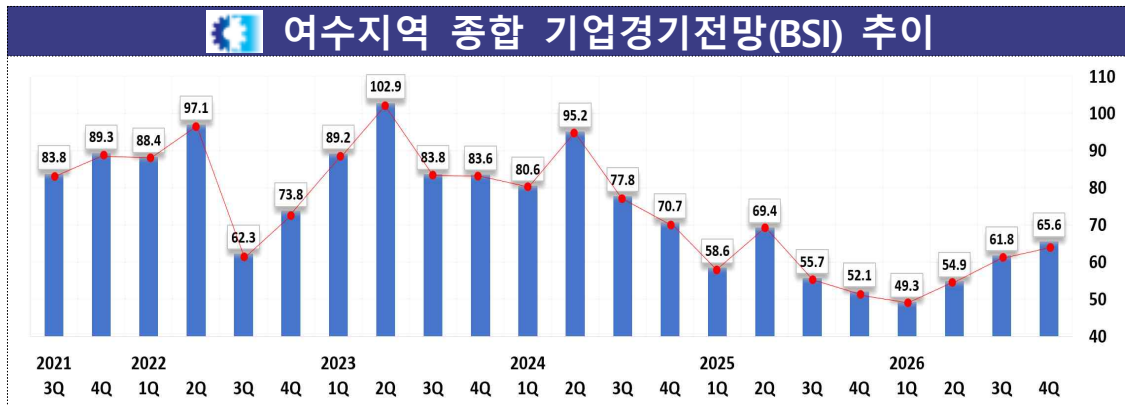
구분	항목	'26년 3Q 실적 (전 분기 대비)	'26년 4Q 전망 (전 분기 대비)
	체감경기	71.9	50.0
	매 출 액	75.0	52.8
	영업이익	75.0	36.1
	설비투자	65.6	58.3
	자금사정	56.3	52.8

▶ 일반 업종(N=28)

구분	항목	'26년 3Q 실적 (전 분기 대비)	'26년 4Q 전망 (전 분기 대비)
	체감경기	71.9	85.7
	매 출 액	75.0	85.7
	영업이익	75.0	85.7
	설비투자	65.6	85.7
	자금사정	56.3	82.1

그래프 분석

▶ 종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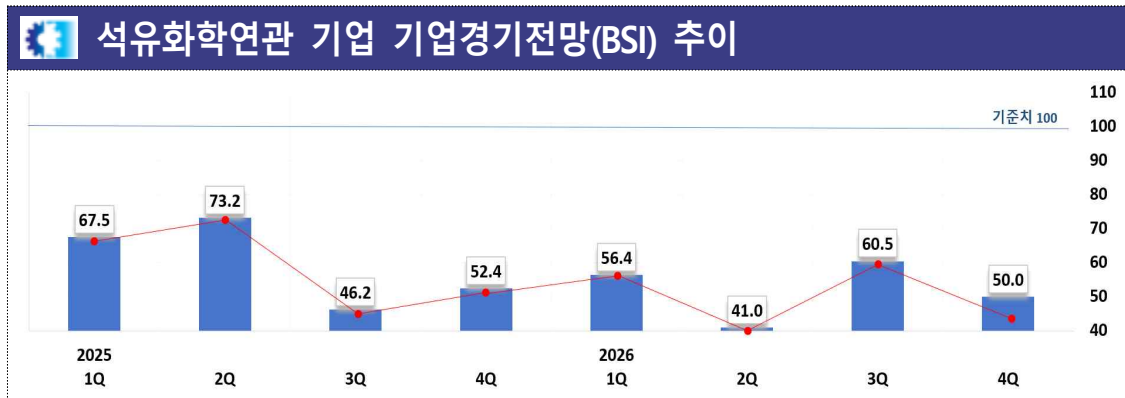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종합	83.8	89.3	88.4	97.1	62.3	73.8	89.2	102.9	83.8	83.6	80.6	95.2	77.8	70.7	58.6	69.4	55.7	52.1	49.3	54.9	61.8	65.6
석유화학연관업종	84.6	100	94.7	97.2	60.5	70.6	88.6	102.8	75.7	86.1	75.8	88.9	73.8	72.5	67.5	73.2	46.2	52.4	56.4	41.0	60.5	50.0
일반업종	82.8	75.0	80.6	96.9	64.5	77.8	90	102.9	93.5	80.6	86.2	103.8	82.1	68.6	46.7	64.5	67.7	51.7	41.2	71.9	63.3	85.7

- ※ 종합 BSI : 61.8(26년 3/4분기) → 65.6(26년 4/4분기), 3.8 상승
- ※ 석유화학 연관 업종 BSI : 60.5(26년 3/4분기) → 50.0(26년 4/4분기), 10.5 하락
- ※ 일반업종 BSI : 63.3(26년 3/4분기) → 85.7(26년 4/4분기), 22.4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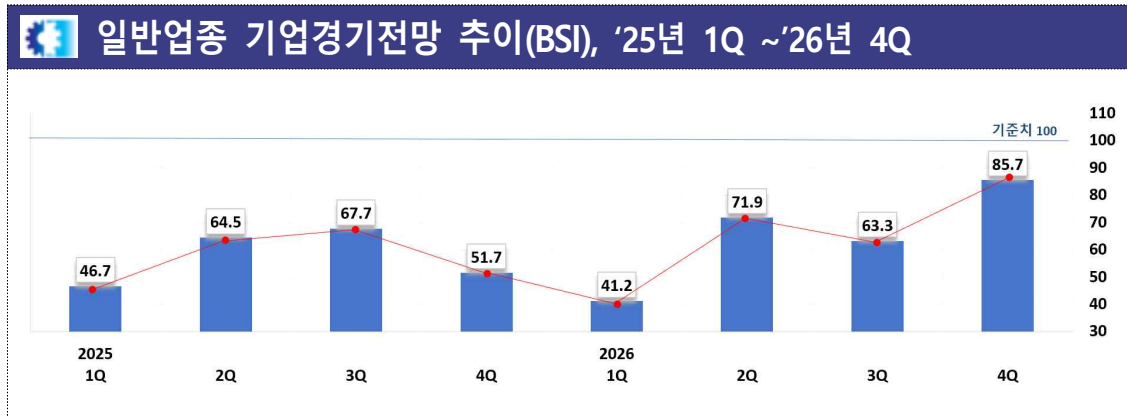
- 종합 BSI는 61.8(2026년 3/4분기 전망)에서 65.6(2026년 4/4분기 전망)으로 3.8 상승했음.
- 다만 2026년 3/4 분기 실적 BSI가 50.0으로 조사되어, 기업들이 체감한 실제 경기 수준은 전 분기 전망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남.
- 항목별로는 매출액 전망이 67.2, 설비투자 70.3, 자금사정 65.6으로 전 분기 실적보다 높아졌으나, 영업이익 전망은 57.8에 머물러 수익성 회복 기대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석유화학연관 업종



- 석유화학연관 업종의 4/4 분기 체감경기 BSI는 50.0으로, 전 분기 전망치 60.5 보다 10.5p 하락했음. 3/4 분기에 다소 높아졌던 경기 회복 기대가 다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여수산단은 석유화학 업황 부진과 구조 개편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생산 및 투자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 주요 기업의 설비 조정과 감산 움직임도 산단 내 생산활동과 연관업종의 체감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설비 가동 조정과 투자 위축은 플랜트 정비·건설·운송 등 연관업종의 수주 여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여수산단 전반의 경기 회복 기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분석됨.
- 다만 최근 주요 기업의 대정비가 이어지면서 정비·보수 분야의 일감과 인력 수요가 일시적으로 확대된 측면도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인 대정비 효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설비 운영과 투자 규모, 연관기업의 수주 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4/4 분기 체감 경기의 본격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일반업종



- 일반업종의 4/4 분기 체감경기 BSI는 85.7로, 전 분기 전망치 63.3보다 22.4p 상승했음. 2026년 들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지역 내수경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 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추석 연휴와 가을철 관광·방문 수요, 연말 소비 증가에 대한 기대 등이 반영되면서 숙박·음식·유통·서비스업 등 지역 내수업종의 경기 전망이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특히 4/4 분기에는 관광객과 방문객 증가, 각종 지역 행사 및 소비활동 확대가 예상되면서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
- 다만 BSI가 여전히 기준치 100을 밑돌고 있어 본격적인 경기 회복보다는 부진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 소비 증가가 지역 상권 전반의 매출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경기 흐름의 주요 변수로 판단됨.

❏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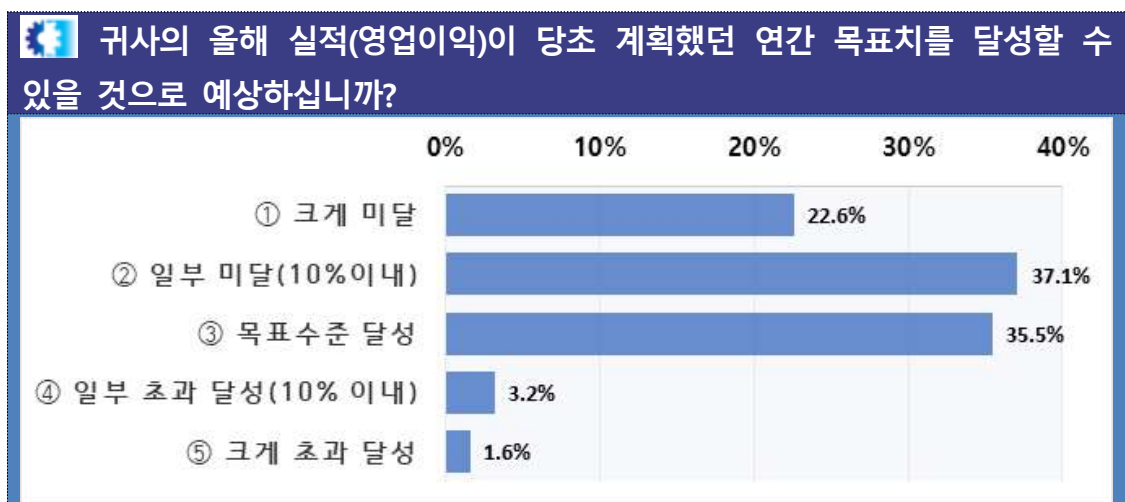
- 2026년 4/4분기 여수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은 전 분기보다 개선됐으나, 일반업종의 상승이 전체 지수를 끌어올린 반면 석유화학연관 업종은 오히려 하락해 업종별 체감경기 차이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여수산단은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과 설비 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단기적인 대정비 수요와 중장기적인 생산·투자 불확실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과도기적 상황으로 판단됨.
- 일반업종은 지역 내수 및 계절적 수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으나 BSI가 여전히 기준치 100을 밑돌고 있어, 지역 제조업 전반의 본격적인 경기 회복으로 판단

하기에는 이른 상황임.

- 향후에는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연관기업의 수주와 고용을 유지하고, 자금·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지역 경기의 하방 압력을 줄이는 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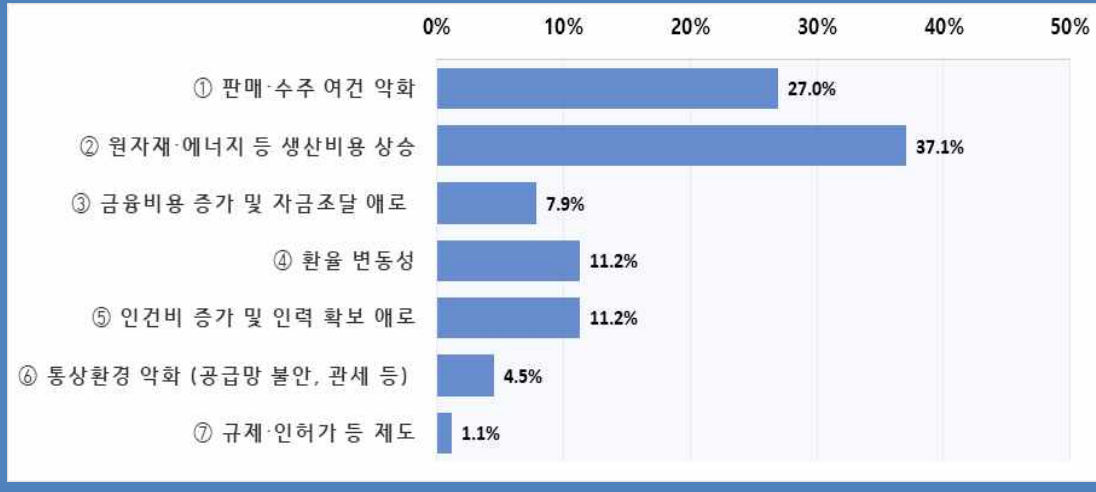
3. 세부 항목 조사 결과

-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 전망에서는 목표 미달을 예상한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조사되었고, 기업들이 연간 실적에 대해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목표 달성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원자재·에너지 등 생산 비용 상승이었으며, 판매·수주 여건 악화와 환율 변동성, 인건비·인력 확보 부담 등이 뒤를 이었음. 이는 기업의 부담이 매출 부진뿐 아니라 비용과 수익성 측면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 과제로는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가 가장 높았으며, 위기산업·지역 지원 확대와 지역 투자 보조금·정책금융 확대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남. 이는 기업들이 신규 사업 발굴보다 당장의 비용 부담 완화와 자금 지원을 더 시급하게 보고 있음을 시사함.
- 항목별 조사 결과



※ 목표 미달을 예상한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기업들이 올해 실적에 대해 여전히 보수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올해 목표치 달성에 있어 현재 귀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생산 비용 상승과 판매·수주 여건 악화가 주요 애로 요인으로 나타나, 기업들이 비용 부담과 매출 여건 악화를 동시에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세제 혜택 강화와 위기산업·지역 지원, 정책금융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 기업들은 직접적인 비용 부담 완화와 자금 지원을 우선으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4. 종합 의견

- 2026년 4/4 분기 여수지역 기업경기는 일반업종의 기대 개선으로 전체 BSI가 상승했으나, 석유화학연관 업종은 부진이 지속되면서 업종 간 체감경기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
- 세부 조사에서도 연간 실적에 대한 보수적 전망과 생산 비용 상승, 판매·

수주 여건 악화가 주요 부담으로 나타나, 체감경기 개선이 실제 수익성 회복으로 이어지기에는 제약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향후에는 세제 부담 완화, 정책금융 및 투자 지원, 위기산업 지원 확대 등 기업 체감도가 높은 직접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여수상공회의소